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전      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  
(Tag:)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겉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4:1-6)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선린교회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선한 도전이 아니면 악한 것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고난과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하는 자에게, 선한 가치를 지키는 자에게는 더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이 주어지고 있다.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하나님은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통치자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지혜를 부어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악한자는 교만하며, 싸우며, 인내하지 아니하며, 미워하고 질투하며, 자기편이 아니면 해치려고 한다. 이들은 인기몰이를 하는 특색이 있고, 자기의 색깔로 전체를 덧칠하려는 성격도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다.

겸손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사랑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신대로 순종해야 한다.

## 3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라 하신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한다.

‘힘써’ 지키라 하셨다. 내가 큰 맘 먹고 너희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자들을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무리들이며, 가난하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하며 순전하며, 서로 신뢰하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으며, 온유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시는 커다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물론 하나님은 조각 하나 하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퍼즐 한 조각이 소리를 내면서 왜 너희는 나와 다르게 생겼냐고 한다면 퍼즐은 맞추어지지 않는다. 어떤 퍼즐은 모양이 같지만 색깔이 다를 수 있다. 똑 같은 퍼즐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가 빠지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만드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혜 일 뿐이다. 다만 상당히 이질적이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사실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도전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 위기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위협이 과연 나에게서는 기회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로 작용할 것인가이다. 많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세월을 허송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된다.

미국은 2008년 프라임 모기지론 이후로 위협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였고 금리를 낮추고 더 많은 투자를 감행하였다. 왜냐면 충분히 준비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술적인 도약을 이루어 냈으며, 셰일가스 혁명을 일구어냈다. 2008년 위기 이후 벌써 8년이 흘렀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석유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석유 때문에 흥청망청하던 나라들은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석유를 수출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대부분의 돈을 소비하는데 사용하였고 석유산업 외에 다른 산업은 거의 없었다.

2008년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로 유럽은 홍역을 앓았다. 흥청망청한 나라들은 줄줄이 무너졌고 이상한 사회 구조를 가진 그리스는 망하기 직전에서 구제 되었다. 일본은 근 20년간을 암울하게 보내다가 급기야는 지진과 쓰나미까지 당하였고 원전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회 각 분야가 골고루 발달하였기에 위

기에 직면해서도 크게 위협하지 않을 수 있었다. 문제는 한국교회에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도 초고속 성장을 하였는데, 성장 일변도의 와중에 건강지수를 점검하는데 소홀하였고, 손쉬운 회개와 혈값 구원, 자극적인 종말론에 탐닉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또한 남한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려앉은 사색당파의 저주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한국교회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치유 불가능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만약 이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그 해악이 치명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손쉬운 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나는 두 교회가 하나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다. 이제 한걸음을 떼는 것이다.

모든 도전이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망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통계이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넘어질 때 재빨리 일어나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으려 한다거나, 넘어져 놓고 사실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역지를 부린다거나, 자기가 넘어진 것은 사실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성공은 아니다.

내가 소망하기는 이번 새소망교회에서는 새로운 목회에 도전하고 싶다. 이름도 딱 걸맞게 새로 지어졌으니 기분이 좋다. 우선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 숙제를 잘 하기로 결단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다윗과 후새와 바르실래      성경: 사무엘하 17장 1-14절  
(Tag:)

1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3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4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5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8 또 후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엿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

11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13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다 (삼하17:1-14)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랫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23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삼하16:23)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우수한 계략이라는 뜻.

-논리적이며, 과학적이며, 당시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전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계략은 꾀하게 하시고, 후세의 속이는 전략은 채택되게 하셨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건드리는 후세의 말이 그에게 깊이 박혔다.

-왜 압살롬은 속아 넘어갔을까? 그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속에 악이 있다면 쉽게 속아 넘어간다.

-반면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는 악한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선하게 활용하는 선한 것이 있었다.

-하지만 압살롬은 더 악한 것이라도 덤씩 물었다. 마귀는 딱 한번만이 악한 것을 물어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그것이 울무가 되어서 그는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